

朝鮮版『藏園詩鈔』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Jangwonsicho Published in Joseon Dynasty

朴 文 烈 (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 言 | 3.1 『藏園詩鈔』의 版本 |
| 2. 『藏園詩鈔』의 著者와 編者 | 3.2 朝鮮版 『藏園詩鈔』의 形態 |
| 2.1 著者 游智開 | 3.3 朝鮮版 『藏園詩鈔』의 特徵 |
| 2.2 初刊本の 編者 兼 刊行者 卞元圭 | 4. 結 論 |
| 3. 朝鮮版 『藏園詩鈔』의 形態와 特徵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研究는 『藏園詩鈔』의 저자인 藏園 游智開(1816-1900)와 初刊本の 編者 겸 刊行者인 吉雲 卞元圭(1837-1896)의 行歷 및 朝鮮版 『藏園詩鈔』의 書誌籍 形態와 內容의 特徵 등에 관하여 考究한 것으로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藏園詩鈔』의 저자인 游智開는 字가 ‘子代’이고 號가 ‘藏園’·‘平原’·‘廉訪’ 등이며, 그는 특별히 朝鮮과 友愛하고 和睦하려고 노력한 人物로 著述로는 『藏園詩鈔』와 『永平縣志』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朝鮮版 『藏園詩鈔』의 編者 겸 初刊者인 吉雲 卞元圭는 憲宗 3년(1837)에 出生하여 開化期의 漢學 通譯官으로 활약하며 國家의 外交에 헌신하다가 高宗 33년(1896)에 享年 60세로 卒去하였으며, 著述로는 『吉雲仙館集』과 『吉雲遺稿』 2종이 있었으나 현재 傳來되지 않고 있다.

(3) 각종 文獻의 검색을 통하여 현재까지 전해지는 吉雲 卞元圭의 詩文은 自作의 詩篇 36題 46首와 文篇 2題 2篇이며, 吉雲과 관련된 他人의 詩文은 詩篇 10題 15首와 文篇 3題 3篇이 전해지고 있다.

(4) 『藏園詩鈔』의 版本은 高宗 20년(1883)에 吉雲 卞元圭에 의하여 朝鮮에서 全史字로 初刊된 朝鮮版과 朝鮮版을 底本으로 光緒 12년(1886)과 光緒 25년(1899)에 木版으로 刊行된 清朝版이 있다.

(5) 朝鮮版 『藏園詩鈔』에는 185題 269首의 詩篇이 收錄되어 있으며, 光緒 12년(1886)의 清朝版 『藏園詩鈔』에는 202題 306首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고 光緒 25년(1899)의 清朝版 『藏園詩鈔』에는 163題 256首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各 版에 수록된 ‘古今體詩’는 한결같이 著作의 時代順으로 編次되어 있다.

(6) 朝鮮版 『藏園詩鈔』에 수록된 185題 269首의 詩篇 中에는 詩題가 달리 나타나는 詩篇이 24題 37首이고 朝鮮版에서만 收錄되어 전해지는 詩篇이 16題 21首이며, 朝鮮과 朝鮮人과 관련된 詩篇들은 朝鮮版에는 17題 26首가 수록되어 있고 清朝版에는 각각 16題 28首와 12題 18首가 수록되어 있다. 朝鮮版 『藏園詩鈔』에 수록된 詩篇들은 藏園의 原詩의 內容과 字句의 原形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어 原詩의 詩格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資料이다.

(7) 朝鮮版 『藏園詩鈔』는 19세기 末期의 朝·清 兩國의 인쇄출판문화의 交流·交涉의 情況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資料이다.

要語: 『藏園詩鈔』, 藏園, 游智開, 吉雲, 卞元圭, 朝鮮版, 清朝版, 吉雲仙館集, 吉雲遺稿

* 淸州大學校 人文社會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투고일: 2019년 5월 10일 최초심사일: 2019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4일
서지학연구, 제78집, 49-6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49]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Jangwonsicho* Published in Joseon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pen-name of Yu Ji Gae, the author of the *Jangwonsicho* (藏園詩鈔), is Jangwon. As the one who was devoted to promoting peace with love for Joseon, he wrote *Jangwonsicho* (藏園詩鈔) and *Yeongpyeonghyeonji* (永平縣志).

(2) Byeon Won Gyu, the editor and publisher of the first edition of the *Jangwonsicho*, was the interpreter of the Joseon Dynasty who was born in 1837 and died in 1896. He wrote two books, *Gilunseongwanjip* (吉雲仙館集) and *Gilunyugo* (吉雲遺稿), but they have not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time.

(3) The literature searches found that the literary works of Byeon Won Gyu that have been passed down until today include the poetry of 46 poems on 36 titles and prose of 2 chapters on 2 titles. The works related to Byeon Won Gyu written by other writers contain the poetry of 15 poems on 10 titles and prose of 3 chapters on 3 titles.

(4) The editions of the *Jangwonsicho* include those of Joseon Dynasty and Qing Dynasty, with the former first published in Joseon in 1883 by Byeon Won Gyu, and with the latter published as woodblock printing in Qing in 1886 and 1899, respectively, by Yu Ji Gae based on the edition of Joseon Dynasty.

(5) In the Joseon edition of the *Jangwonsicho* published in 1883 were included the total 269 poems on 185 titles; in the Qing edition of the same book issued in 1886 were included the total 306 poems on 202 titles; and in another Qing edition of 1899 were included the total 256 poems on 163 titles. The 'Archaism and Recent Style Poetry (古今體詩)' contained in each edition was compiled chronologically based on the period they were written.

(6) The poetry included only in the Joseon edition of *Jangwonsicho* are 21 poems on 16 titles. Especially the poetry about Joseon and its people include 26 poems on 17 titles in the Joseon edition, while 28 poems on 18 titles and 18 poems 12 titles are included in the Qing editions,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woodblock-printed versions of the *Jangwonsicho* of the Qing editions were made through revision of addition or reduction with the Joseon edition as its original.

(7) The Joseon edition of the *Jangwonsicho* is considered the material to help understand interchanges and negotiations of the print & publication culture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ies in the late 19th century.

Key words: *Jangwonsicho*(藏園詩鈔), Jangwon(藏園), Yu Ji Gae(游智開), Gil Un(吉雲),
Byeon Won Gyu(卞元圭), the Joseon dition(朝鮮版), the Qing edition(清朝版),
Gilunyugo(吉雲遺稿), *Gilunseongwanjip*(吉雲仙館集)

1. 緒 言

『藏園詩鈔』는 淸朝 말기의 문신·학자이자 문인인 藏園 游智開(1816-1900)의 詩選集이다.

藏園은 阿片戰爭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꺾박과 침략을 目睹하면서 牧民官의 德目과 외교적 관심을 실천한 행정관료였으며, 젊은 시절부터 自作한 古今體¹⁾의 詩篇들을 單卷으로 刪錄하고 秘藏하여 자신의 殉葬에 대비할²⁾ 정도로 詩作에도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藏園詩鈔』는 藏園이 68세이던 高宗 20년(1883)에 朝鮮人 吉雲 卞元圭(1837-1896)에 의하여 漢城에서 雲館活字³⁾로 初刊⁴⁾되었으며, 그 뒤 淸朝에서는 吉雲의 初刊本을 바탕으로 光緒 12년(1886)⁵⁾과 光緒 25년(1899)⁶⁾에 각각 木版으로 刊行되기도 하였다.

淸朝人의 저술이 朝鮮人에 의하여 그것도 淸朝가 아닌 조선에서 初刊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며, 이는 당시 朝鮮의 인쇄출판문화가 淸朝에 비교하여 한층 발전되고 우수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事例로서도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藏園詩鈔』의 저자인 藏園 游智開와 初刊本의 編者 겸 刊行者인 吉雲 卞元圭의 行歷 및 朝鮮版 『藏園詩鈔』의 書誌的·內容的 特徵 등에 관하여 고구함으로써, 19세기 말기의 朝·淸 兩朝의 인쇄출판문화의 交流·交涉의 情況을 이해하고 조명하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2. 『藏園詩鈔』의 著者와 編者

『藏園詩鈔』의 저자는 淸朝人 藏園 游智開이며, 朝鮮版 『藏園詩鈔』의 編者 겸 刊行者는 朝鮮人 吉雲 卞元圭이다.

- 1) 古近體詩: 古體詩와 近體詩를 병칭한 것으로 古體詩는 唐代에 近體詩가 興起된 그 이전의 古代의 詩라는 개념으로 古代부터 隋代에 이르기까지의 詩體를 지칭하며, 近體詩 또는 今體詩는 唐代에 이르러 古體詩에 대응하여 興起한 詩體를 지칭하는 것이다.
- 2)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全史字(雲館活字)本. [漢城]: [雲館], [高宗 20(1883)]. ‘自識’條.
“古今體詩 少好吟詠 亦不多作 刪錄一卷 藏篋笥中 爲日後殉葬具可耳 光緒七年辛巳秋日 新化游智開.”
- 3) 雲館活字: 순조 16년(1816)에 敦巖 朴宗慶이 私鑄한 銅活字로 ‘全史字’·‘敦巖字’·‘雲峴宮活字’·‘雲館活字’ 등 여러 가지로 稱名되고 있다. ‘全史字’는 順조 22년(1822)에 인출된 金陵 南公轍의 문집인 『潁翁續藁』에서 ‘全史字體’라 기록된 데에서, ‘敦巖字’는 敦巖의 부친 錦石 朴準源의 문집인 『錦石集』의 標題面에 ‘敦巖活印’이라 기록된 데에서, ‘雲峴宮活字’는 興宣大院君 李昰應이 執政할 때 雲峴宮에 藏置되어 서적의 印出에 사용된 데에서 命名된 것이다. 이 활자는 大韓帝國 말기까지 大陵·雲峴宮·壽泉亭·雲館 등 장소를 옮겨가며 비용을 받고 個人의 編著書는 물론 佛書 및 道教書의 印出에 사용되어 民間의 文化 보급에 크게 寄與한 活字이다.
- 4)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刊記’條.
“光緒九年仲夏峇雲館活字印.”
- 5) 游智開 著, 『藏園詩鈔』, 木版本. [淸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刊記’條.
“光緒丙戌歲二月.”
- 6) 游智開 著, 『藏園詩鈔』, 木版本. [淸朝]: [刊行處不明], [光緒 25(1899)].

2.1 著者 游智開

『藏園詩鈔』의 저자인 藏園 游智開는 字가 ‘子代’이고 號가 ‘藏園’·‘平原’·‘廉訪’ 등이며, 그의 略傳은 『淸史稿』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⁷⁾

藏園은 嘉慶 21년(1816)에 湖南省 新化縣 上梅鎮의 교육자 집안에서 출생하여 咸豐 1년(1851)의 鄉試와 同治 4년(1864)의 會試에 급제한 뒤 知縣事에 補選되면서 仕路로 들어섰으나, 經費를 감당하기 어려운 外地의 근무로 한때는 鄉里로 돌아가 家風을 이어서 學童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결국은 그마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고 다시 仕路로 들어선 뒤로 光緒 24년(1898)에 老齡으로 사직하고 귀향할 때까지 40여년에 걸쳐서 四川·安徽·河北·福建·廣東·廣西 등 여러 省의 行政관료를 역임하는 동안 牧民官의 德目を 실행에 옮겨 많은 治績을 남긴 인물이다. 그 결과 그의 死後에는 그가 在任하였던 각 지역에서 앞다투어 그를 名臣으로 배향하려 할 정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藏園은 특별히 朝鮮과 友愛하고 和睦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同治 11년(1872)에 河北省 永平府의 知府官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海蒼 姜蘭馨(1813-1881)·橘山 李裕元(1814-1888)·翰山 閔種默(1835-1916)·吉雲 卞元圭(1837-1896)·梧西 朴周陽(1838-1891)·白石 姜贊(1849-1901) 등 많은 조선의 使臣들과 교유하는 한편, 때로는 서로 酬唱을 통하여 ‘文字之交’를 맺고 國際情勢를 상세히 분석하고 事理에 맞게 상술하여 朝鮮에 조언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光緒 6년(1880)에 朝鮮의 高宗皇帝가 使行團의 吉雲 卞元圭를 통하여 그에게 書簡과 함께 經籍·藥物 등을 보내자, 그는 寶劔 1자루를 答禮로 보내면서 自強을 勉勵하는 情理가 생생히 담긴 五言長詩 『雙劔奉答朝鮮國王』⁸⁾을 함께 동봉하여 倭와 鵝羅斯 등이 서로 꾀박하므로 修政하고 自強하는 것이 마땅하나 외부세계를 단절한 채 自國을 지키려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翰山 閔種默에게 贈與한 『贈朝鮮使臣閔翰山』⁹⁾을 통하여서는 안전하게 최상의 方策을 도모하여 君王의 仁厚함이 오래도록 칭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조언하면서, 朝鮮에 대한 걱정과 국가 경영의 方策 및 실천적인 提言은 물론 朝鮮과 淸朝의 共同繁榮을 위하여 함께 苦心하고 努力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욱이 藏園의 詩篇들은 그의 志操와 節概가 맑고도 高潔하여 그의 詩句도 구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朝鮮의 사신들과 교유하면서 贈別한 詩도 적지 않았으며, 이 詩篇들은 역대 중국의 변방 사신들과의 贈答한 詩篇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7) 趙爾巽 等撰, 『淸史稿』, <<http://www.guoxue123.com/shibu/0101/00qsg/450.htm>> 卷451. 列傳238. ‘游智開’條 參看.

8)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全史字(雲館活字)本. [漢城: [雲館], [高宗 20(1883)]. ‘雙劔奉答朝鮮國王’條 參看.

9) 游智開 著, 『藏園詩鈔』, 木版本. [淸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贈朝鮮使臣閔翰山’條 參看.

나아가 藏園은 자신의 자작 詩篇들을 選集하여 刊行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朝鮮人 吉雲 卞元圭는 이러한 藏園의 詩篇들을 적극 蒐集하고 編輯하여 高宗 20년(1883)에 漢城에서 雲館活字로 初刊하였다. 이는 藏園이 조선의 사신들과 맺은 友誼로 朝鮮과 淸朝의 문화교류가 촉진됨으로써 나타난 작용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藏園의 저술로는 『藏園詩鈔』와 『永平縣志』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藏園詩鈔』는 3차에 걸쳐 간행된 藏園의 詩選集이며, 『永平縣志』는 그가 동치 11년(1872)에 河北省 永平府의 知府官으로 부임하여 관내를 두루 순시하며 民情을 살피고 書院과 城壁을 수축하면서 編修한 永平의 縣志이다.

2.2 初刊本の 編者 兼 刊行者 卞元圭

朝鮮版『藏園詩鈔』의 編者 겸 初刊者는 朝鮮人 吉雲 卞元圭(1837-1896)¹⁰⁾이다.

2.2.1 吉雲 卞元圭의 家系와 生涯

吉雲 卞元圭는 朝鮮朝 말기의 譯官으로 본관은 密陽(草溪)이고 字는 ‘大始’·‘善長’ 등이며 號는 ‘吉雲’·‘蛛舡’ 등이다.¹¹⁾

吉雲의 증조는 武科에 급제하여 訓鍊主簿를 역임한 卞世赫(1728-1772)이며 조부는 영조 50년(1774)에 增廣試의 醫科에 급제하여 典醫監正을 역임한 卞重觀(1745-1801)이다. 부친은 순조 16년(1816)에 式年譯科의 漢學에 급제하여 行中樞府事와 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한 秋齡 卞光韻(1798-1821)이며, 모친은 判官을 역임한 密陽 朴仁載(?-?)의 따님이다.

吉雲은 부친 秋齡公과 모친 密陽朴氏(1810-?)와의 슬하에서 憲宗 3년(1837)에 獨子로 出生¹²⁾하

10) 密陽卞氏의 家門과 吉雲 卞元圭의 行歷에 관하여는 ① 金紅梅, “嘯齋 卞鍾運 文學의 主題意識 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大學院, 2015), 23-24와 ② 金紅梅, “譯官 卞元圭의 生涯와 中國 使行時의 交遊,” 『國文學研究』 第36號(2017. 11), 233-252 등에 자세하다.

11) 吉雲 卞元圭의 家系는 “卞庭實(始祖) - 耀(02) - 冲甫(03) - 高迪(04·密陽祖) - 益成(密02) - 和景(密03) - 珠(密04) - 原(密05) - 玉蘭(密06) - 仲良(密07) - 吉祥(密08) - 乙明(密09) - 禮生(密10) - 宗義(密11) - 孝亮(密12·孝亮公派) - 玉東(密13·孝02) - 希完(密14·孝03) - 繼永(密15·孝04) - 應星(密16·孝05) - 承業(密17·孝06) - 爾興(密18·孝07) - 廷彥(密19·孝08) - 世赫(密20·孝09) - 重觀(密21·孝10) - 光源(密22·孝11①) - 光銓(②)·光韻(③) - 元圭(密23·孝12) - 鍾獻(密24·孝13) - 惠淵(密25·孝14) - 旺植(密26·孝15) - 志善(密27·孝16) - 弘均(密28·孝17·男)·允廷(女) …” 등으로 系譜되고 있다(密陽卞氏孝亮公派譜刊行會 編, 『密陽卞氏孝亮公派譜』 (서울: 孝亮公派譜刊行會, 2011) 및 草溪密陽卞氏大宗會 編, 『草溪密陽卞氏孝亮公派譜』 (大田: 寶典出版社, 1987) 卷1·卷4·卷5).

12) 『密陽卞氏孝亮公派譜』 등에 의하면 吉雲의 生父인 秋齡公 卞光韻(1798-1821)은 純祖 21년(1821)에 卒去하고 吉雲 卞元圭(1837-1896)는 憲宗 3년(1837)에 出生한 것으로 기록되어, 吉雲은 生父가 卒去한 지 17년 뒤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세한 관계는 짐작하기 어렵다(密陽卞氏孝亮公派譜刊行會 編, 『密陽卞氏孝亮公派譜』 (서울: 孝亮公派譜刊行會, 2011), 190 參看).

여 典醫監直長과 副司果 등을 역임한 伯父 卞光源(1781-1816)의 後嗣로 入系되었으나, 伯父는 그가 출생하기 22년 전에 이미 卒去하여 伯父의 戶籍만 入籍되었을 뿐 生母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吉雲은 철종 6년(1855)의 己卯式年試에 譯科의 漢學으로 급제¹³⁾한 뒤 고종 3년(1866)에는 畿輔都巡撫營에 300兩錢을 出資하여 軍需에 助力¹⁴⁾하고 고종 13년(1876)에는 履歷의 구비로 加資¹⁵⁾되었으나 곧 身病으로 인하여 五衛將에서 撤차¹⁶⁾되었다. 고종 15년(1878)에는 漢學 堂上의 役관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加資¹⁷⁾되었으며, 고종 17년(1880) 4월에는 宮營建의 別看役을 역임¹⁸⁾하고 6월에는 漢學 堂上 役관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加資¹⁹⁾되었으며, 7월에는 大護軍으로서 正憲大夫에 加資²⁰⁾되고 9월에는 上護軍에 陞²¹⁾되었다. 동년(1880) 10월에는 清朝에 留學生의 과견을 주선하기 위한 別賣咨官으로서 請諮文을 進달²²⁾하고 漢學 堂上 役관으로서 공로로 加資²³⁾되었다.

고종 18년(1881) 정월에는 領選使인 雲養 金允植(1835-1922)을 따라 別遣堂上으로 파견된 뒤 漢學 堂上 役관으로서 參事에 差定²⁴⁾되고 2월에는 積城縣監²⁵⁾과 加平郡守에 差²⁶⁾되었으며,

- 13) 密陽卞氏孝亮公派譜刊行會 編, 『密陽卞氏孝亮公派譜』(서울: 孝亮公派譜刊行會, 2011), 186.
- 14)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 高宗 3年 9月 20(丙子)日條.
“又以畿輔都巡撫營言啓曰 … 司譯院前正卞元圭 錢三百兩 來納臣營 願助軍需 故捧上之意 敢啓傳曰 知道.”
- 1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5月 6(丙申)日條.
“司譯院啓曰 漢學堂下譯官卞元圭 履歷俱備 特爲加資 以爲前頭任事之地 何如 傳曰 允.”
- 1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閏5月 3(癸亥)日條.
“又啓曰 … 五衛將卞元圭·姜世興·韓斗琦 … 俱以身病 呈狀乞遞 … 竝改差 何如 傳曰 允.”
- 17)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5年 7月 3(辛亥)日條.
“又以司譯院都提調·提調意啓曰 漢學堂上譯官李容肅·金載禹·李應三·金仁植·韓應晚·卞元圭·李用俊 … 非但久次 效勞亦多 特加一資 … 以爲前頭任使之地 何如 傳曰 允.”
- 18)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4月 7(甲辰)日條.
“又啓曰 別宮營建之役 今爲浩大 … 前同知卞元圭 … 別看役加差下 使之舉行 何如 傳曰 允.”
- 19)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6月 26(壬戌)日條.
“又以司譯院都提調·提調意啓曰 漢學堂上譯官李應寅·李泰秀·李應三·李恒基·李用俊·卞元圭 … 係是久次之人 竝各加一資 … 以爲前頭任使之地 何如 傳曰 允.”
- 20)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7月 6(壬申)日條.
“吏批 再政 以李萬教爲工曹參議 … 大護軍卞元圭今加正憲 護軍方天鏞今加嘉義 … 加資事承傳.”
- 21)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9月 22(丁亥)日條.
“兵批 … 上護軍卞元圭 大護軍洪鍾雲·曹錫興·方天鏞 護軍朴容大·李僖魯 … 以上竝單付.”
- 22)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10月 29(甲子)日條.
“洪永禹 以議政府言啓曰 卽見別賣咨官卞元圭手本 則移咨事 既爲準請云矣 此不可無謝恩之舉 依已例咨文 令文任撰出 方物 亦令該曹照例磨鍊 付送於節使之行 何如 傳曰 允.”
- 23)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10月 29(甲子)日條.
“洪永禹 以司譯院都提調·提調意啓曰 信使行中譯官請賞事 自廟堂草記 允下矣 … 漢學堂上下元圭·李應三·秦喜永·李一泳 … 係是久次之人 一體加資施行 … 何如 傳曰 允.”
- 24)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1月 18(辛巳)日條.
“又以統理機務衙門言啓曰 本衙門所管諸務中 亦有任譯使用之事 漢學譯官金景遂·卞元圭·李應憲 倭學譯官玄昔運 竝以參事爲稱 差定舉行 何如 傳曰 允.”
- 2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2月 27(己未)日條.

고종 19년(1882)에는 上護軍²⁷⁾과 竹山府使²⁸⁾를 거쳐 12월에 長湍府使에 제수²⁹⁾되었다. 고종 20년(1883) 정월에는 參議交涉通商事務에 제수³⁰⁾되고 5월에는 『藏園詩鈔』의 「序文」을 찬술³¹⁾함과 동시에 芸館活字로 『藏園詩鈔』를 간행³²⁾하였으며, 10월에는 參議交涉通商事務의 協議官으로 差下³³⁾되고 12월에는 平山府使에 제수³⁴⁾되었다. 고종 21년(1884)에는 協辦交涉通商事務³⁵⁾·嘉善大夫³⁶⁾·知敦寧府事³⁷⁾·上護軍³⁸⁾ 등에 제수되고 고종 22년(1885)에는 判尹³⁹⁾·大護軍⁴⁰⁾·協辦交涉通商事務⁴¹⁾ 등에 差下되었으며, 고종 23년(1886) 정월에는 辭職을 上疏⁴²⁾하였다.

고종 24년(1887) 5월에는 金完洙의 日商借款에 연루되어 平安道 順川郡으로 定配⁴³⁾되었으며,

“以金演壽爲敦寧都正 卞元圭爲積城縣監 金弘集爲信使 尹泰駿爲從事官 蘇輝冕爲假監役.”

2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2月 29(辛酉)日條.

“傳曰積城縣監卞元圭 加平郡守丁大肇 令該曹 口傳相換.”

27)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1月 2(己丑)日條.

“兵批 … 上護軍卞元圭 護軍李僖魯·金奎弘·沈東臣·徐鶴淳·尹宗德 … 以上竝單付.”

28)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8月 23(丙子)日條.

“有政 … 卞元圭爲竹山府使 金明鎮爲春川府使 林琦相爲延日縣監 姜凡秀爲狼川縣監 ….”

29)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12月 29(辛巳)日條.

“傳曰 長湍府使李寅晚 竹山府使卞元圭相換.”

30)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0年 1月 17(己亥)日條.

“傳曰 副護軍趙秉弼·金玉均·李祖淵 長湍府使卞元圭 參議交涉通商事務.”

31)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序文’條.

“夫不游元圃安知積玉之珍藏 … 繡有人永頌平原之德 光緒癸未端陽節朝鮮卞元圭謹撰.”

32)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刊記’條.

“光緒九年仲夏皆雲館活字印.”

33)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0年 10月 23(庚午)日條.

“統理軍國事務衙門啓曰 … 參議交涉通商事務卞元圭 協議官差下 … 使之同爲赴津 何如 傳曰 允.”

34)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0年 12月 16(壬戌)日條.

“傳于韓圭萬曰 坡州牧使有關之代 平山府使姜潤除授 平山府使之代 前府使卞元圭除授.”

3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3月 28(癸卯)日條.

“傳于朴宗鉉曰 參議交涉通商事務卞元圭 協辦差下.”

3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5月 7(辛巳)日條.

“以司謁口傳下教曰 前參議交涉通商事務卞元圭 既陞協辦矣 本資還收 以嘉善下批.”

37)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5月 14(戊子)日條.

“傳于李源中曰 協辦交涉通商事務卞元圭 知敦寧除授.”

38)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12月 22(壬辰)日條.

“兵批 … 同知單任翼尙 上護軍卞元圭 大護軍韓敬源·洪鍾軒 … 以上竝單付.”

39)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5月 8(丙午)日條.

“傳于金九鉉曰 判尹有關之代 前協辦卞元圭 除授.”

40)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5月 24(壬戌)日條.

“兵批 … 大護軍金晚植·卞元圭 護軍李容元·金興圭·李根命·鄭雲龜 … 以上竝單付.”

41)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12月 29(癸巳)日條.

“傳于李愚冕曰 上護軍卞元圭 外務協辦差下.”

42)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3年 1月 5(己亥)日條.

“協辦交涉通商事務卞元圭疏曰 伏以 歲籥載新 邦錄無疆 進箋上冊 … 伏乞天地父母 俯垂矜諒 亟令選部 利 [刊]名仕籍 屏逐田野 俾作祝堯之氓 以效一半分不報之報 千萬幸甚云云 省疏具悉 勿辭行公.”

43)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4年 5月 30(丙戌)日條.

고종 25년(1888) 9월에는 돌아가신 生父母의 冥福을 祈願하며 『金剛經』 3百部를 간행⁴⁴⁾하였으며, 12월에는 『平安道放未放成冊』에 따라 定配에서 석방되었다.⁴⁵⁾ 고종 27년(1890) 정월에는 判尹에 낙점⁴⁶⁾되고 11월에는 京兆 堂上 判尹에 낙점⁴⁷⁾되었으며, 고종 31년(1894) 7월에도 다시 京兆 堂上 判尹에 낙점⁴⁸⁾되었다. 고종 33년(1896)에 이르러 享年 60세로 卒去⁴⁹⁾하였다.

吉雲은 開化期의 漢學 通譯官으로서 國益을 위한 外交活動에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2.2 吉雲 卞元圭의 著述

吉雲 卞元圭는 詩와 書에 능하였으며, 그의 저술로는 『吉雲仙館集』과 『吉雲遺稿』 2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吉雲仙館集』의 존재는 『海客詩鈔』의 卷5에 수록된 吉雲의 略傳에 “卞元圭는 字가 善長·大始 登이고 號는 吉雲·蛛缸 登이며 密山人이다. … 그의 저서로는 『吉雲仙館集』이 있다.”⁵⁰⁾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朝鮮朝 말기의 역관인 研農 崔性學(1842-?)이 고종 5년(1868) 무렵에 편집하여 필사한 『海客詩鈔』의 완전한 版本은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다.⁵¹⁾

다만 청조인 研樵 董文渙(1833-1877)이 편집하고 현대의 李豫와 崔永禧 등이 輯校한 『韓客詩存』의 上篇에 수록된 『海客詩鈔』에는 동치 7년(1868) 10월에 찬술된 研農의 『海客詩鈔序』를 비롯하여 권1에 李容肅(40수), 권2에 姜海壽(27수), 권3에 金秉善(32수), 권4에 金奭準(41수), 권5에 卞元圭(46수), 권6에 崔性學(49수) 등의 古近體詩가 각각 수록되어 있어 그 대체적인 면모만을 짐작할

“義禁府啓曰 協辦通商事務卞元圭 施以遠惡地定配 … 承傳啓下矣 卞元圭平安道順天郡遠惡地定配 …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都事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44) 鳩摩羅什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全史字本. [發行地不明]: [卞元圭], [高宗 26(1889)]. 刊記條.

“戊子菊秋 信士卞元圭 刷印金剛經三百本 敬資先大夫秋齡公·先大夫人密陽朴氏冥福.”

4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5年 12月 26(癸卯)日條.

“以平安道放未放成冊 傳于金昇圭曰 朴寅煥·朴基琇·卞元圭·吳衡鐸放.”

4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7年 1月 21(壬戌)日條.

“傳于金炳秀曰 在外判尹許遞 前望單子入之 判尹前望單子入之 卞元圭落點.”

47)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27年 11月 11(丁丑)日條.

“傳于閔宗植曰 少尹外 京兆堂上竝許遞 前望單子入之 京兆堂上前望單子入之 判尹卞元圭落點.”

48)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7月 4(戊寅)日條.

“傳于李秉勳曰 少尹外 京兆堂上竝許遞 前望單子入之 判尹卞元圭落點.”

49) 密陽卞氏孝亮公派譜刊行會 編, 『密陽卞氏孝亮公派譜』 (서울: 孝亮公派譜刊行會, 2011), 187.

50) 董文渙 編, 李豫·崔永禧 共輯校,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68-69.

“卞元圭 字善長 又字大始 號吉雲·蛛缸 密山人 … 著有吉雲仙館集.”

51) 董文渙 編, 李豫·崔永禧 共輯校,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17.

“海客詩鈔 抄本 卷首有朝鮮崔性學序 序云 ‘金小棠哀集同人詩草 要余商証 彙爲二卷’ 是序爲同治七年十月所作 是抄本爲同治十年朝鮮使李容肅從朝鮮帶來求董文渙點定時 董文渙抄錄之本 今未見韓國諸目錄著錄 一冊黑線直格 四周雙欄 一粗一細 半頁十行 行十九字 版心上方寫‘菊人’等字 單魚尾 板框十六·四×十·八釐米.”

수 있을 뿐이다.⁵²⁾ 따라서 『海客詩鈔』가 편집된 시기로 짐작할 때 『吉雲仙館集』은 吉雲의 생전에 편집된 듯하나, 현재 『吉雲仙館集』이 傳來되지 않아 수록된 詩篇의 수량이 『海客詩鈔』의 권5에 수록된 46수의 詩篇과 그 수량이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吉雲遺稿』의 존재는 雲養 金允植의 『雲養續集』 卷2에 수록된 『吉雲遺稿序』에 “甲寅年(1914) 봄에 君의 胤子인 鍾猷이 君의 遺稿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序文을 청하였다. 遺稿를 펼쳐보니 使臣으로 함께 일하던 자취가 역력히 눈앞에 있건만 어느덧 30여년이 지났다. … 옛 자취를 回顧하며 遺稿를 읽어보니 感懷가 일어, 병든 몸으로 힘을 다해 遺稿의 序頭에 쓴다.”⁵³⁾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表 1> 吉雲 卞元圭의 自作 詩文 및 他人 著作 詩文

區分	題名(首·篇) ⁵⁴⁾	備考
自詩	①「答李遐觀(晚成)書懷見寄之作」(1)·②「懷沈鍾山(英慶)江都之遊」(1)·③「哭玄希庵丈(錡)」(1)·④「冠嶽山下有小屋極幽深欣然小憩留題壁上」(1)·⑤「朴天游(文達)見訪」(1)·⑥「病餘散步登清遠樓」(1)·⑦「送鄭六硯(在晨)薄遊湖西」(1)·⑧「寄李西溪(應九)」(1)·⑨「過思遐亭追憶前日文酒之盛」(1)·⑩「遐觀奄忽已逾年感懷攬筆不覺泫然」(2)·⑪「秋夜小集」(1)·⑫「次李少石學士韻却寄」(1)·⑬「平楚亭曉起賞雪憶京社舊遊」(1)·⑭「水仙花」(1)·⑮「次六硯韻」(1)·⑯「山居」(1)·⑰「尹芝山(錫運)來訪同鍾山西溪六硯賦」(2)·⑱「寄懷吳華隱(學善)」(2)·⑲「曉坐」(1)·⑳「喜見樓謹次金荷屋相國韻」(1)·㉑「偶題」(1)·㉒「有感」(1)·㉓「謹次荷屋相國重陽韻」(1)·㉔「平楚亭喜晤朴雨塘(青浩)」(1)·㉕「題小棠和國竹枝詞卷」(1)·㉖「長湍道中」(1)·㉗「黃州口占寄六硯」(1)·㉘「過太子河」(1)·㉙「別情」(1)·㉚「董研樵(文煥)翰林索和追懷」(8) ⁵⁵⁾ ·㉛「石坡閣下招集晚嘉齋」(1)·㉜「五君咏 王蓉洲(憲成)給諫」(1)·㉝「五君咏 黃緇雲(雲鵠)郎中」(1)·㉞「五君咏 沈仲復(秉成)觀察」(1)·㉟「五君咏 董研樵太史」(1)·㊱「五君咏 張叔平(世準)主事」(1)	
自文	①「歡齋集序」(1) ⁵⁶⁾ ·②「藏園詩鈔序」(1) ⁵⁷⁾	
他詩	①「贈朝鮮卞吉雲」(1)·②「再贈卞吉雲」(1)·③「天津贈卞吉雲」(1)·④「寄襄卞吉雲」(1) ⁵⁸⁾ ·⑤「喜晤吉雲小酌」(1) ⁵⁹⁾ ·⑥「贈珠船卞元圭佐辨誣奏使之行」(5) ⁶⁰⁾ ·⑦「贈卞吉雲」(1) ⁶¹⁾ ·⑧「次卞吉雲見贈韻」(2) ⁶²⁾ ·⑨「次韻奉贈同行諸君子」(1) ⁶³⁾ ·⑩「次卞吉雲山海關韻」(1) ⁶⁴⁾	
他文	①「筠庵雅集圖集」(1) ⁶⁵⁾ ·②「送卞吉雲(元圭)序(辛巳季冬)」(1) ⁶⁶⁾ ·③「吉雲遺稿序」(1) ⁶⁷⁾	
合 計	自詩 36題 46首 自文 2題 2篇 他詩 10題 15首 他文 3題 3篇	

52) 董文煥 編, 李豫·崔永禧 共輯校, 『韓客詩存』(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23-96.

53)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部 編, 『雲養續集』, 鉛活字本. 京城: [刊行者不明], 1930. 卷2. 序. ‘吉雲遺稿序’條. “… 昔晉趙武 與鄭之七卿宴飲 賦詩言志 皆得善評 晉鄭之交 於是益密 詩辭之關於人國交際 顧不重且大歟 吉雲子少有雋才 工於詩文 及壯而從政 在內則潤色辭命 出疆則馳驅咨度 實事求是 不爲苟作 故其詩文清婉委曲 輸寫衷情 使人悅懌而有餘味也 余與君素不相識 乃垂老傾蓋于遼薊燕趙之野 自以爲平生奇遇 恨相知之晚 行則并鑣唱和 止則張燈晤語 所談皆宇內情形 邦國交際之務 每聽之亹亹不厭 及到天津 與津門諸公 推分結好 所至皆倒屣而迎之 爲余先容 事無碍滯 幸不辱命 寔君之力也 東還以後 與余同仕外部 又同蒙恩譴 自是飄蓬湖海 天各一方 無復盍簪之期矣 甲寅春 君之胤鍾猷甫 持君遺稿而來 且徵弁文 試一展卷 原濕共事之蹟 歷歷在目 而倏已逾三十餘年 其間屢閱滄桑 萬事皆成幻境 不堪追道 然惟念是時國勢貧弱 如鄭國之在春秋之時 不有子產諸賢修辭彌縫 安能自立於晉楚之間乎 其孤危如此 而舉國猶晏然不以爲意 獨吉雲子周旋尊俎之間 竟開我國交際之路 其功豈在鄭賢下哉 回首陳蹟 撫卷興感 力疾而書其卷.”

54) 崔性學 外著, “海客詩鈔”, 『韓客詩存』(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68-81 所收. ‘卞元圭古今體詩(四十六首)’條 參看.

雲養의 『吉雲遺稿序』는 갑인년(1914) 봄에 吉雲의 胤子인 幼雲 卞鍾獻(1859-1929)이 편집한 『吉雲遺稿』를 직접 열람하고 찬술한 序文인 만큼 『吉雲遺稿』가 당시까지 實存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나, 현재 『吉雲遺稿』가 傳來되지 않아 수록된 吉雲의 詩篇의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吉雲의 생전의 시문집인 『吉雲仙館集』과 吉雲이 卒去한 후에 아들 幼雲에 의하여 편집된 『吉雲遺稿』 등은 未刊行의 定稿筆寫本으로 유전되다가 끝내 失傳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각종 文獻의 검색을 통하여 현재까지 전해지는 吉雲의 自作 및 吉雲과 관련된 他人의 詩文을 종합하여 볼 때, 吉雲의 自作은 詩篇 36題 46首와 文篇 2題 2篇에 지나지 않으며, 他人들에 의한 吉雲과 관련된 詩文은 詩篇 10題 15首와 文篇 3題 3篇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朝鮮版 『藏園詩鈔』의 形態와 特徵

3.1 『藏園詩鈔』의 版本

『藏園詩鈔』의 版本은 크게 高宗 20년(1883)의 朝鮮版과 光緒 12년(1886) 및 光緒 25년(1899)의 清朝版으로 나눌 수 있다.

朝鮮版 『藏園詩鈔』는 高宗 20년(1883)에 吉雲에 의하여 雲館에서 全史字(雲館活字)로 初刊⁶⁸⁾

- 55) 董文煥 編, 李豫·崔永禧 共輯校, 『韓客詩存』(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224-225. ‘和研秋懷八章(同治五年一月十四日 朝鮮卞元圭 輯自‘硯樵山房日記’手稿)’條 參看.
- 56) 卞鍾運, 卞春植 編, 『歡齋集』, 鉛活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高宗 27(1890). ‘序[卞元圭]’條.
“吾宗歡齋老人 天分高古 瀟然有出塵之想 而好學即其性也 … 庚寅仲春 元圭拜叙.”
- 57)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序’條.
“夫不游元圃 安知積玉之珍藏 … 光緒癸未端陽節 朝鮮卞元圭謹撰.”
- 58)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 59) 崔性學 外著, “海客詩鈔,” 『韓客詩存』(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88 所收 參看.
- 60) 南秉哲 著, 南秉吉 編, 『圭齋遺藁』, 全史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高宗 1(1864). 卷2. 詩. ‘贈珠船卞元圭佐辨誣奏使之行(五首)’條.
- 61) 金澤榮 著, 『韶護堂詩集』, 鉛活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卷3. 詩(丙戌稿). ‘贈卞吉雲’條.
- 62)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續集』卷1, 詩. ‘次卞吉雲見贈韻(補遺)’條.
“慧業文[丈]人得佛先 不群詩思正飄然 圖酬恩渥知今日 努力前程善飯眠.”
- 63)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續集』卷1, 詩. ‘次韻奉贈同行諸君子(補遺)(右卞吉雲)’條.
“清姿蕭灑迥超塵 誰識明時獻玉人 王事年年程有限 佇看梅柳渡江新.”
- 64)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續集』卷1, 詩. ‘次卞吉雲山海關韻(補遺)’條.
“連延雄堞洩西來 城上遙望海上臺 萬馬騰空雲外出 六龍戴柱日邊迴 可歎偉績無人繼 豈意重關亦自開 極目平乘千古恨 角聲淒切暮天哀.”
- 65) 董文煥 編, 李豫·崔永禧 共輯校, 『韓客詩存』(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301. 韓客文存. ‘筠庵雅集圖集(同治六年二月 清黃雲鶴 輯自實其齋文鈔卷三)’條.
- 66)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續集』卷9, 序. ‘送卞吉雲(元圭)序(辛巳季冬)’條.
- 67)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續集』卷2, 序. ‘吉雲遺稿序’條.

된 판본으로 不分卷 1책(64장)이며 表紙의 題簽은 吉雲의 胤子인 幼雲 卞鍾獻이 署籤한⁶⁹⁾ 것이다.

<表 2> 朝鮮版『藏園詩鈔』와 淸朝版『藏園詩鈔』의 版本別 書誌的 特徵

番號	事 項	朝鮮版『藏園詩鈔』(1883)	淸朝版『藏園詩鈔』(1886)	淸朝版『藏園詩鈔』(1899)	備考
01	書 名	藏園詩鈔	藏園詩鈔	藏園詩鈔	
02	著 者	游智開(1816-1900)	游智開(1816-1900)	游智開(1816-1900)	
03	編 者	卞元圭(1837-1896)	游智開(1816-1900)	游智開(1816-1900)	
04	版 種	金屬活字本(雲館·全史字)	木板本	木板本	
05	刊行地	漢城	[淸朝]	[淸朝]	
06	刊行處	雲館	[不明]	[不明]	
07	刊行年	光緒 9年(1883 癸未) 仲夏	光緒 12年(1886 丙戌) 2月	光緒 25年(1899 己亥)	
08	卷冊數	1卷1冊(64張)	1卷1冊(84張)	1卷1冊(71張)	
09	自識(1)	光緒七年辛巳(1881)秋日 新化游智開	光緒七年辛巳(1881)秋日 新化游智開	光緒二十年甲午(1894)秋日 新化游智開	
10	自識(2)	-	時甲申(1884)冬游智開識	-	
11	序文(1)	光緒 9年(1883, 癸未) 端陽節 朝鮮卞元圭(1837-1896)謹撰	光緒 9年(1883, 癸未) 端陽節 朝鮮卞元圭(1837-1896)謹撰	光緒 9年(1883, 癸未) 夏五月 朝鮮卞元圭(1837-1896)謹撰	
12	序文(2)	-	-	光緒 11年(1885, 乙酉) 冬十月 山陰傅鍾麟(?-?)謹序	
13	跋 文	〈[光緒 10年(1884, 甲申) 雲養 金允植(1835-1922)이 卞元圭 를 代作한 <游藏園詩集跋>] 未 收錄〉	光緒 11 嘉平年(1885, 乙酉) 山陰傅鍾麟(?-?)頓首拜跋	-	
14	收錄詩	185題 269首	202題 306首	163題 256首	
15	表 題	藏園詩鈔 (卞鍾獻書籤)	藏園詩鈔	藏園詩鈔	
16	標 題	藏園詩鈔	藏園詩鈔	藏園詩鈔	
17	卷頭題	藏園詩鈔	藏園詩鈔	藏園詩鈔	
18	版心題	藏園詩鈔	藏園詩鈔	藏園詩鈔	
19	卷尾題	-	-	-	
20	邊 欄	四周單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21	半 郭	22.0×14.0cm	19.8×14.2cm	19.9×14.0cm	
22	界 線	有界	有界	有界	
23	行字數	10行21字 註小字雙行	9行21字 註小字雙行	9行21字 註小字雙行	
24	板 口	上花口下大黑口	上花口下白口	上花口下大黑口	
25	魚 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黑魚尾	
26	規 格	31.2×20.2cm	29.8×17.3cm	30.0×17.8cm	
27	紙 質	韓紙(楮紙)	漢紙	漢紙	
28	裝 訂	線裝(五針眼訂)	線裝(四針眼訂)	線裝(四針眼訂)	
29	所藏處	國立中央圖書館·個人 등	奎章閣·國立中央圖書館 등	奎章閣·哈佛大學漢和圖書館	

68)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刊記’條.
“光緒九年仲夏峇雲館活字印.”

69)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表題’條.
“藏園詩鈔(卞鍾獻書籤).”

朝鮮版『藏園詩鈔』에는 ‘古今體詩’라는 題名으로 藏園의 185題 269首의 詩篇들이 장르의 구분이 없이 저작의 시대순으로 編次되어 있으며, 수록된 詩篇들은 藏園의 『自識』를 통하여 볼 때⁷⁰⁾ 그의 少時에서 66세이던 光서 7년(1881) 가을에 이르기까지의 詩篇들이다.

清朝版『藏園詩鈔』는 朝鮮版을 底本으로 하여 光서 12년(1886)과 光서 25년(1899)에 각각 木版으로 간행되었다.⁷¹⁾⁷²⁾

光서 12년(1886)에 간행된 『藏園詩鈔』는 不分卷 1책(84장)으로 卷頭에는 朝鮮版에 수록되었던 高宗 20년(1883)의 吉雲의 『序』⁷³⁾와 光서 7년(1881)의 藏園의 『自識』⁷⁴⁾가 改作을 거쳐 수록되어 있고 光서 10년(1884)에 藏園이 新作한 『自識』도 수록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光緒 11년(1885)의 傅鍾麟(?-?)의 『跋文』⁷⁵⁾이 수록되어 있다. 藏園이 新作한 『自識』에는 “기묘년(1879) 겨울에 燕京에 入都하여 朝鮮의 사신 卞君 吉雲과 우연히 만난 후로 교유가 계속되었다. 卞君은 平州와 津門(天津)을 왕래하며 수차에 걸쳐서 詩篇으로 서로 唱和를 하다가 歸國日에 [나의] 옛 詩稿를 거두어 돌아왔다. 금년(1884)에 서간으로 [당시에] 索觀한 것은 活字版으로 간행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그 印本 100部를 기증하였는데, 그중에는 刪削되어 마땅할 詩篇들도 적지 않아 당일로 급히 찾아내어 타국의 朝鮮人들까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에 근래의 詩作을 부록으로 하는 한편 장래에 잘 이해될 수 없을 약간의 시편들도 刪削을 거쳤다. 갑신년(1884) 겨울에 游智開는 識하다.”⁷⁶⁾고 기술하고 있다. 光서 12년(1886)에 간행된 『藏園詩鈔』에는 202題 306首의 藏園의 詩篇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詩篇들은 藏園이 新作한 『自識』를 통하여 볼 때, 그의 少時에서부터 69세이던 光서 10년(1884) 겨울에 이르기까지의 詩篇들임을 알 수 있다.

光서 25년(1899)에 간행된 『藏園詩鈔』는 不分卷 1책(71장)으로 卷頭에는 高宗 20년(1883)에 吉雲이 찬술한 『序文』의 개작된 『序文』⁷⁷⁾과 光서 11년(1885)에 傅鍾麟이 찬술한 『跋文』이 改作을 거쳐 『序文』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이어서 光서 20년(1894)에 藏園이 찬술한 『自識』가 수록되어

70)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全史字(雲館活字)本. [漢城]: [雲館], [高宗 20(1883)]. ‘自識’條.

“古今體詩 少好吟詠 亦不多作 刪錄一卷 藏篋笥中 爲日後殉葬具可耳 光緒七年辛巳秋日 新化游智開.”

71) 游智開 著, 『藏園詩鈔』, 木版本.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72) 游智開 著, 『藏園詩鈔』, 木版本.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25(1899)].

73) 游智開 著, 『藏園詩鈔』,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序文’條.

“夫不游元圃 … 永頌平原之德 光緒癸未端陽節 朝鮮卞元圭謹撰.”

74) 游智開 著, 『藏園詩鈔』,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自識’條.

“古今體詩 少好吟詠亦不强作 刪錄一卷藏篋笥中 爲日後殉葬具可耳 光緒七年辛巳秋日 新化游智開.”

75) 游智開 著, 『藏園詩鈔』,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跋文’條.

“春秋時 列國大夫 … 論其見重於外藩者 光緒乙酉嘉平年 愚弟山陰傅鍾麟頓首拜跋.”

76) 游智開 著, 『藏園詩鈔』,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自識’條.

“己卯冬入都 與朝鮮使臣卞君吉雲邂逅訂交嗣 卞君往來平州暨津門 數以詩章相贈 歸國日攜舊稿去 今歲書來謂 索觀者眾 活字板以應 並寄百本 其中應刪者多 悔當日之遽出以示遠邦也 茲將近作附後 將來不識又刪若干 時甲申冬 游智開識.”

77) 游智開 著, 『藏園詩鈔』,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25(1899)]. ‘序文’條.

“夫不游元圃 … 永頌平原之德 光緒癸未端陽節 朝鮮卞元圭謹撰.”

있다. 광서 25년(1899)에 간행된 『藏園詩鈔』에는 163題 256首의 詩篇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詩篇들은 그의 少時에서부터 79세이던 광서 20년(1894) 겨울에 이르기까지의 시편들이다. 藏園은 광서 20년(1894)에 찬술한 『自識』에서 “古近體詩 1卷이다. 少時부터 詩作을 좋아하였으나 強作하지도 않았다. 금년(1894)에 옛 詩篇을 刪削하고 새로운 詩篇을 추가하여 1권으로 選錄하였으나, 이제는 늙어서 해마다 작품을 選錄할 수도 없을 것이며 옛 詩篇들은 刪削을 할수록 줄어들 뿐이다. 이제 남은 것만이라도 殉葬에 대비하고자 한다. 광서 20년(1894) 秋日에 新化 游智開 識하다.”⁷⁸⁾라고 기술하여 이후로 더는 자신의 詩篇들을 改作하거나 增補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3.2 朝鮮版『藏園詩鈔』의 形態

고종 20년(1883)에 吉雲 卞元圭에 의하여 雲館에서 全史字로 初刊된 朝鮮版『藏園詩鈔』의 書誌記述과 書影은 다음과 같다.

藏園詩鈔 / 游智開(1816-1900) 著; 卞元圭(1837-1896) 編. -- 金屬活字本(全史字). -- [漢城]: [雲館], [光緒 9(1883, 癸未) 仲夏].
 不分卷1冊(64張): 四周單邊, 半郭 22.0×14.0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花口下大黑口, 上下向黑魚尾; 31.2×20.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藏園詩鈔(卞鍾獻書籤)
 標題: 藏園詩鈔
 卷頭題: 藏園詩鈔
 版心題: 藏園詩鈔
 自識: 光緒七年辛巳(1881)秋日 新化游智開.
 序文: 光緒九年(1883, 癸未)端陽節 朝鮮卞元圭謹撰
 [跋文]: [光緒十年(1884) 雲養 金允植(1835-1922)이 卞元圭를 代作한 『游藏園詩集跋』未收錄.]⁷⁹⁾

78) 游智開 著, 『藏園詩鈔』. [清朝]: [刊行處不明], [光緒 25(1899)]. ‘自識’條.

“古近體一卷 少好吟詠 亦不強作 歲錄一卷刪舊續新 今老矣恒經歲不作 舊則愈刪愈少矣 姑存此爲殉葬具 光緒二十年甲午秋日 新化游智開.”

79)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集』卷11, 跋. ‘遊藏園詩集跋(甲申 代卞元圭作)’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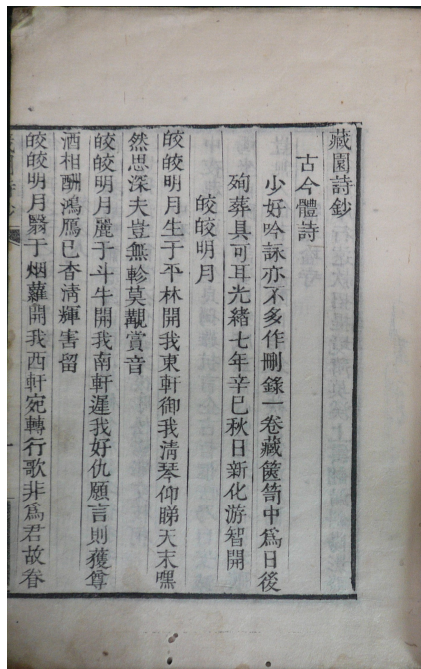
“右遊藏園先生詩集一卷 卽先生近作也 古之君子 言必有物 發而成章 故有感發懲創之妙 魏晉以降 尚玄言遺世故 其爲詩 格古調逸 而有物則未也 隋唐以詩取士 未嘗有感于物 而率取浮響以求合乎世 用工愈深而去真愈遠 詩之道日以趨卑矣 遊藏園先生以忠信之質博達之才 棲遲州縣 隱於吏事 含章韜光 不欲以詩人自命 而其興會所寄 非民國攸係情性所至 不作也 故其志澹而遠 其聲清而壯 詠而復之 淵然有餘味 信乎非有物而有章者 不能也 某年元圭謁先生於永平府署 先生不以遠人鄙之 謬加獎詡 進之門牆之內 元圭感激自奮 是後連年奉使 輒勤造請 先生爲之矜其不能 教其不逮 與之言 麴盡竟日夕 其歸也贈之以詩 先生愛元圭如親戚 憂藩國事如其家政 勸勉之意 往往寓於篇章之間 元圭雖不敏 其敢忘諸 辛巳冬 自保定東歸 拜別先生於逆旅 執手黯然 淚涔涔欲下 仍念先生春秋已高 元圭亦嬰病早衰 于役之勞 可以休矣 異日天各一方 何以慰相憶之苦 惟此詩集不足以盡先生之大致 而先生之苦心代籌 期扶藩服綴疏之勢 如寶劍篇諸詩不可沒也 亟謀入梓 廣布同志 共仰先生之德 元圭亦得以朝夕諷誦 如坐春風中 心香一瓣 庶不以山川間之也.”



朝鮮版『藏園詩鈔』의 標題面



朝鮮版『藏園詩鈔』의 前表紙



朝鮮版『藏園詩鈔』의 卷頭面



朝鮮版『藏園詩鈔』의 刊記面

<寫眞 1> 朝鮮版『藏園詩鈔』의 各種 書影

3.3 朝鮮版『藏園詩鈔』의 特徵

고종 20년(1883)에 吉雲 卞元圭에 의하여 雲館에서 全史字로 初刊된 朝鮮版『藏園詩鈔』에 수록된 藏園의 『自識』를 통하여 볼 때, 藏園은 자신의 詩篇들을 刪削이나 改作을 거쳐 編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광서 12년(1886)과 광서 25년(1899)에 각각 木版으로 간행된 清朝版『藏園詩鈔』의 판본은 朝鮮版을 저본으로 增刪을 거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朝鮮版『藏園詩鈔』에는 2종의 清朝版『藏園詩鈔』와 비교하여 몇 가지의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表 3> 『藏園詩鈔』의 各 版本에 수록된 詩篇의 詩題의 同異

番號	朝鮮版 (1883)		清朝版 (1886)		清朝版 (1899)		備考
	題號	詩題(首)	題號	詩題(首)	題號	詩題(首)	
01	002	皎皎明月(3)	002	皎皎明月(3)	003	明月篇(3)	
02	026	答友人	020	寄襄唐十一未兌	007	寄襄唐十一未兌	
03	034	城西雜詩(8)	027	城西雜詩(8)	010	城西(8)	
04	044	舟次漢江縣	037	舟次漢江縣	023	舟次漢川縣	
05	084	蘆溝橋	076	蘆溝橋	021	蘆溝橋	
06	090	署中畫牧丹	081	署中畫牧丹	039	和州署中畫牧丹	
07	092	四十五日泗州牧	082	四十五日泗州牧	040	去泗州日作	
08	095	白下吟	085	白下吟	042	金陵	
09	110	史家菴寓居	099	史家菴寓居	052	清苑史家菴寓居	
10	116	天津謁李節相	105	初至天津	058	冬日天津道中作	
11	148	玉田稻	133	玉田稻	081	玉田縣(2)	
12	149	玉田葱	134	玉田葱	-	(合 玉田縣)	
13	151	宿萬松寺	136	宿萬松寺	083	宿盤山萬松寺	
14	172	梅花外子歌	157	梅花外子歌	097	梅花使者歌	
15	182	朝鮮朴梧西道過永平相會 … 乞爲詩歌別後作此寄之	168	朝鮮朴梧西道過永平相會 … 乞爲詩歌別後作此寄之	106	朝鮮使臣朴梧西道過永平 … 乞爲詩歌別後作此寄之	
16	192	寄姜海滄	174	寄姜海蒼	-	-	蒼
17	232	餞別香崖(2)	215	送香崖南遊(2)	144	送香崖南遊(2)	
18	235	己卯三月廿九日潞河途次 恭紀	218	己卯三月廿九日潞河途次 恭紀	146	潞河途次恭紀	
19	244	別盧龍王農部荷夫墓	227	別盧龍王農部荷夫墓	154	別王荷夫墓	
20	253	過盧溝作	237	過盧溝作	161	過盧溝橋作	
21	259	寄襄卞吉雲	241	寄襄卞吉雲	171	寄懷卞吉雲	
22	261	永定河神祠頌(4)	246	永定河神祠頌(4)	167	永定河神祠曲(3)	
23	267	送彭郎南歸	252	送彭郎南歸	173	送彭郎歸	
24	269	宿戒臺寺	254	宿戒臺寺	175	宿戒壇寺	
計		24題 37首		24題 37首		22題 35首	

朝鮮版『藏園詩鈔』와 2종의 淸朝版『藏園詩鈔』에 수록된 詩篇들을 서로 대비할 때, 詩題가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 詩篇이 무려 24題 37首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藏園 자신이『藏園詩鈔』가 改版될 때마다 스스로 詩篇들을 刪削하고 改作한 노력의 결과로 말미암은 듯하다.

<表 4> 朝鮮版『藏園詩鈔』에만 收錄된 詩篇⁸⁰⁾

區分	題名(首)	備考
詩	①『黃陵廟』(1)·②『過亡弟墓』(1)·③『新婚曲』(1)·④『贈鄭雪堂』(1)·⑤『僊人歌』(1)·⑥『送友人之在下南』(1)·⑦『贈后柴』(1)·⑧『和州送別』(1)·⑨『泗州僧寺』(1)·⑩『金陵舟次留別』(1)·⑪『臨榆道中即景』(1)·⑫『碣石篇』(3)·⑬『摩山四詠爲朝鮮李橘山作』(4)·⑭『長新店』(1)·⑮『詠柳』(1)·⑯『河干消夏』(1)	
計	16題 21首	

<表 5>『藏園詩鈔』의 各 版本에 收錄된 朝鮮人 關聯의 詩

番號	朝鮮版 (1883)		淸朝版 (1886)		淸朝版 (1899)		備考
	題號	題名(首)	題號	題名(首)	題號	題名(首)	
01	174	送朝鮮使臣姜海蒼返國	160	送朝鮮使臣姜海蒼返國	099	送朝鮮使臣姜海蒼返國	姜蘭馨
02	175	又送姜白石	161	又送姜白石	100	又送姜白石	姜 贊
03	176	寄懷朝鮮沈士民	162	寄懷朝鮮沈士民	-	-	沈[某]
04	177	盆橘一株贈朝鮮使臣李橘山(3)	163	盆橘一株贈朝鮮使臣李橘山(3)	101	盆橘一株贈朝鮮使臣李橘山(3)	李裕元
05	180	和朝鮮使臣金龜玉鍊橋玩月	166	和朝鮮使臣金龜玉鍊橋玩月	104	和朝鮮使臣金龜玉鍊橋玩月	朝鮮使
06	181	送朴梧西	167	送朴梧西	105	送朴梧西	朴周陽
07	182	朝鮮朴梧西道過永平相會 … 乞爲詩歌別後作此寄之	168	朝鮮朴梧西道過永平相會 … 乞爲詩歌別後作此寄之	106	朝鮮使臣朴梧西道過永平 相會 … 乞爲詩歌別後作此 寄之	朴周陽
08	183	見李橘山行年歎感而和之	169	見李橘山行年歎感而和之	107	見李橘山行年歎感而和之	李裕元
09	187	摩山四詠爲朝鮮李橘山作 (4)	-	-	-	-	李裕元
10	191	橘山寄和六十初度詩因疊 韻答之	173	橘山寄和六十初度詩因疊 韻答之	-	-	李裕元
11	192	寄姜海滄	174	寄姜海滄	-	-	姜蘭馨
12	193	朝鮮贈答詩(5)	175	朝鮮贈答詩(5)	108	朝鮮贈答詩(5)	朝鮮使
13	247	贈朝鮮卞吉雲	230	贈朝鮮卞吉雲	153	贈朝鮮卞吉雲	卞元圭
14	248	再贈卞吉雲	231	再贈卞吉雲	156	再贈卞吉雲	卞元圭
15	249	天津贈卞吉雲	233	天津贈卞吉雲	157	天津贈卞吉雲	卞元圭
16	250	雙劍奉答朝鮮國王	234	雙劍奉答朝鮮國王	158	雙劍奉答朝鮮國王	國 王
17	259	寄襄卞吉雲	241	寄襄卞吉雲	171	寄懷卞吉雲	卞元圭
計	17題 26首		16題 22首		12題 18首		

80)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漢城]: [雲館], [高宗 20(1883)].

이뿐만이 아니라 朝鮮版『藏園詩鈔』에 수록된 藏園의 185題 269首의 詩篇 중에는 藏園 자신이 개관할 때마다 刪削을 거치는 과정에서 刪去되어, 清朝版에는 전혀 수록되지 않은 채 朝鮮版에만 수록되어 전해지는 詩篇도 16題 21首에 달하고 있다.

한편, 朝鮮版『藏園詩鈔』에는 藏園이 동치 11년(1872) 이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海蒼 姜蘭馨(1813-1881)·橘山 李裕元(1814-1888)·翰山 閔種默(1835-1916)·吉雲 卞元圭(1837-1896)·梧西 朴周陽(1838-1891)·白石 姜贊(1849-1901) 등 많은 조선의 사신들과 교유하면서 서로 唱和를 통하여 ‘文字之交’를 맺었던 관계로 朝鮮이나 朝鮮인과 관련된 詩篇들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朝鮮版『藏園詩鈔』에는 「朝鮮贈答詩」(1題 5首)와 「雙劍奉答朝鮮國王」(1題 1首) 및 「和朝鮮使臣金龜玉螭橋玩月」(1題 1首) 등을 비롯하여 海蒼 姜蘭馨(2題 2首)·白石 姜贊(1題 1首)·士民 沈某(1題 1首)·橘山 李裕元(4題 9首)·梧西 朴周陽(2題 2首)·吉雲 卞元圭(4題 4首) 등의 17題 26首의 詩篇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朝鮮版『藏園詩鈔』에 수록된 藏園의 詩篇들이 185題 269首로 볼 때, 詩題數로는 약 9.2%에 달하고 詩首數로는 약 9.7%에 달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藏園의 朝鮮과 朝鮮인에 관한 友好觀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도 朝鮮版『藏園詩鈔』에는 2종의 清朝版『藏園詩鈔』와 비교할 때, 수록된 詩篇들은 藏園의 原詩의 內容과 字句의 原形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어 原詩의 詩格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朝鮮版『藏園詩鈔』의 특징을 통하여, 朝鮮版『藏園詩鈔』는 19세기 말기의 朝·淸 兩朝의 印刷出版文化의 交流·交涉의 情況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結 論

이상에서 『藏園詩鈔』의 저자인 藏園 游智開와 初刊本の 編者 曺 刊行者인 吉雲 卞元圭의 行歷 및 朝鮮版『藏園詩鈔』의 書誌的 形態와 內容의 特徵 등에 관하여 고구하였다.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藏園詩鈔』의 저자인 游智開(1816-1900)는 字가 ‘子代’이고 號가 ‘藏園’·‘平原’·‘廉訪’ 등이며, 그는 특별히 朝鮮과 友愛하고 和睦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동치 11년(1872)에 河北省 永平府의 知府官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海蒼 姜蘭馨(1813-1881)·橘山 李裕元(1814-1888)·翰山 閔種默(1835-1916)·吉雲 卞元圭(1837-1896)·梧西 朴周陽(1838-1891)·白石 姜贊(1849-1901) 등 많은 조선의 사신들과 교유하는 한편, 때로는 서로 唱和를 통하여 ‘文字之交’를 맺고 國際情勢를 상세히 분석하고 事理에 맞게 상술하여 朝鮮에 조언하기도 하였다. 藏園의 『藏園詩鈔』는 3차에 걸쳐 간행된 그의 詩選集이며, 『永平縣志』는 그가 河北省 永平府의 知府를

역임할 때 관내를 두루 순시하며 民情을 살피고 書院과 城壁을 수축하면서 編修한 永平의 縣志이다.

(2) 朝鮮版『藏園詩鈔』의 編者 겸 初刊者인 吉雲 卞元圭(1837-1896)는 朝鮮朝 말기의 譯官으로 本貫은 密陽이고 字는 ‘大始’·‘善長’ 등이며 號는 ‘吉雲’·‘蛛缸’ 등이다. 그는 憲宗 3년(1837)에 出生하여 典醫監直長과 副司果 등을 역임한 伯父 卞光源(1781-1816)의 後嗣로 入系되었으나, 그의 伯父는 그가 출생하기 22년 전에 이미 卒去하여 伯父의 戶籍에 入籍만 되었을 뿐 生母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종 33년(1896)에 享年 60세로 卒去한 吉雲은 開化期의 漢學通譯官으로서 國益을 위한 外交活動에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獻身한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3) 吉雲의 저술로는 『吉雲仙館集』과 『吉雲遺稿』 2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吉雲仙館集』의 존재는 『海客詩鈔』의 卷5에 수록된 吉雲의 略傳에 나타나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吉雲遺稿』의 존재는 雲養 金允植(1835-1922)의 『雲養續集』 卷2에 수록된 『吉雲遺稿序』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이들의 완전한 版本은 현재 전래되지 않고 있다.

(4) 각종 文獻의 검색을 통하여 현재까지 전해지는 吉雲의 自作 및 吉雲과 관련된 他人의 詩文으로는 吉雲의 自作은 詩篇 36題 46首와 文篇 2題 2篇에 지나지 않으며, 他人들에 의한 吉雲과 관련된 詩文은 詩篇 10題 15首와 文篇 3題 3篇에 지나지 않는다.

(5) 『藏園詩鈔』의 版本은 고종 20년(1883)에 간행된 朝鮮版과 광서 12년(1886) 및 광서 25년(1899)에 간행된 淸朝版이 있으며, 朝鮮版 『藏園詩鈔』는 고종 20년(1883)에 吉雲에 의하여 雲館에서 全史字(雲館活字)로 初刊된 版本으로 수록된 내용은 ‘古今體詩’라는 제명으로 185題 269首의 詩篇들이 著作의 時代順으로 編次되어 있다.

(6) 광서 12년(1886)에 간행된 淸朝版 『藏園詩鈔』는 不分卷 1책(84장)으로 卷頭에는 고종 20년(1883)의 吉雲의 『序』와 광서 7년(1881)의 藏園의 『自識』가 改作을 거쳐 수록되어 있고 藏園이 광서 10년(1884)에 新作한 『自識』도 수록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光緒 11년(1885)에 傅鍾麟(?-?)이 찬술한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詩篇은 古今體詩 202題 306首이다.

(7) 광서 25년(1899)에 간행된 淸朝版 『藏園詩鈔』는 不分卷 1책(71장)으로 卷頭에는 고종 20년(1883)의 吉雲 『序文』의 개작된 『序文』과 광서 11년(1885)의 傅鍾麟의 『跋文』이 改作을 거쳐 『序文』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이어서 광서 20년(1894)의 藏園의 『自識』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詩篇은 古今體詩 163題 256首이며, 藏園은 『自識』를 통하여 이후로 더는 자신의 詩篇들을 改作하거나 增補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8) 朝鮮版 『藏園詩鈔』에 수록된 藏園의 『自識』를 통하여 볼 때, 藏園은 자신의 詩篇들을 刪削이나 改作을 거쳐 編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2종의 淸朝版 『藏園詩鈔』의 판본은 朝鮮版을 저본으로 增刪을 거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朝鮮版 『藏園詩鈔』와 2종의 淸朝版 『藏園詩鈔』를 대비할 때, 朝鮮版 『藏園詩鈔』에 수록된 詩篇 중의 24題 37首의 詩篇은 淸朝版에서 詩題가 달리 나타나고 있고 16題 21首의 詩篇은 朝鮮版에만 收錄되고 있으며, 17題 26首의 詩篇은

朝鮮과 朝鮮人과 관련된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도 朝鮮版『藏園詩鈔』에 수록된 詩篇들은 藏園의 原詩의 內容과 字句의 原形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어 原詩의 詩格을 짐작할 수 있으며, 藏園의 朝鮮과 朝鮮人에 관한 友好觀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朝鮮版『藏園詩鈔』는 19세기 말기의 朝·淸 兩朝의 印刷出版文化의 交流·交涉의 情況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참고문헌>

[原典資料]

-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集』. 鉛活字本. 京城: [刊行者不明], 1930.
金允植 著, 李斌承 校正, 金琪邵 編. 『雲養續集』. 鉛活字本. 京城: [刊行者不明], 1930.
金澤榮 著. 『韶護堂詩集』. 鉛活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南秉哲 著, 南秉吉 編. 『圭齋遺藁』. 全史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高宗 1(1864).
卞鍾運, 卞春植 編. 『歎齋集』. 鉛活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高宗 27(1890).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
游智開 著, 卞元圭 編. 『藏園詩鈔』. 全史字(雲館活字)本. [漢城]: [雲館], [高宗 20(1883)].
游智開 著. 『藏園詩鈔』. 木版本. [淸朝]: [刊行處不明], [光緒 12(1886)].
游智開 著. 『藏園詩鈔』. 木版本. [淸朝]: [刊行處不明], [光緒 25(1899)].

[單行本·論文]

- 董文渙 編, 李豫·崔永禧 共輯校.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密陽卞氏孝亮公派譜刊行會 編. 『密陽卞氏孝亮公派譜』. 서울: 孝亮公派譜刊行會, 2011.
草溪密陽卞氏大宗會 編. 『草溪密陽卞氏孝亮公派譜』. 大田: 寶典出版社, 1987.
金紅梅. “嘯齋 卞鍾運 文學의 主題意識 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大學院. 2015.
金紅梅. “譯官 卞元圭의 生涯와 中國 使行時의 交遊.” 『國文學研究』 第36號(2017. 11). 233-252.
崔性學 外著. “海客詩鈔.”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68-81 所收.

[電子情報源]

- 國立中央圖書館: <http://www.nl.go.kr/>
奎章閣韓國學研究院: <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
國學導航 淸史稿: <http://www.guoxue123.com/shibu/0101/00qsg/450.htm>

國學網 清史稿: <http://www.guoxue.com/shibu/24shi/qingshigao/qsgxml.htm>

新湖南: <http://hunan.voc.com.cn/xhn/article/201601/201601211424398564.html>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yeon, Jong Un [et al]. King Gojong 27(1890). *Sojaejip*. metal type printing edition. [s.l.]: [s.n.].
Choe, Seong Hak [et al]. 1996. “Haegaeksicho.” *Haegaeksijon* (pp. 68-81). Peking: Seomokmun Heon Chulpansa.

Chogyemilyangbyeonsi Daejonghoe. 1987. *Chogyemilyangbyeonsi Hyoryanggongpabo*. Daejeon: Bojeonchulpansa.

Dong, Mun Hwan [et al]. 1996. *Hangaeksijon*. Peking: Seomokmun Heon Chulpansa.

Kim, Hong Mae. 2017. “The Translator Byeon Won Gyu’s Career and Intercourse in Peking.” *Gukmunhakyongu*, 36: 233-252.

Kim, Hong Mae. 2015. *A Study on Sojae Byeon Jong Un’s Munhak Jujewisik*. Doctor degree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Taek Yeong. [n.d.]. *Sohodangsijip*. metal type printing edition. [s.l.]: [s.n.].

Kim, Yun Sik [et al]. 1930. *Unyangjip*. metal type printing edition. Seoul: [s.n.].

Kim, Yun Sik [et al]. 1930. *Unyangsokjip*. metal type printing edition. Seoul: [s.n.].

Milyangbyeonsi Hyoryanggongpabo Ganhaenghoe. 2011. *Milyangbyeonsi Hyoryanggongpabo*. Seoul: Milyangbyeonsi Hyoryanggongpabo Ganhaenghoe.

Nam, Byeong Cheol [et al]. King Gojong 1(1864). *Gyujaeyugo*. metal type printing edition. [s.l.]: [s.n.].

Seungjeongwon. 1968. *Seungjeongwonilgi*. photographic edition. Seoul: Guksapyeonchanwiwonhoe.

Yu, Ji Gae, Byeon, Won Gyu ed. [King Gojong 20(1883)]. *Jangwonsicho*. metal type printing edition. [Seoul]: [Ungwan].

Yu, Ji Gae. [Gwangseo 12(1886)]. *Jangwonsicho*. woodblock printing edition. [Ching Dynasty]: [s.n.].

Yu, Ji Gae. [Gwangseo 25(1899)]. *Jangwonsicho*. woodblock printing edition. [Ching Dynasty]: [s.n.].